

배우 정우성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



영화배우 정우성이 2014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를 홍보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정우성은 1994년 데뷔 이후 20년간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지난 20년간 세계 현대미술을 알리고 한국 미술의 세계화에 힘써온 광주비엔날레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평소 미술관과 갤러리는 자주 찾는 미술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정우성은 9월4일 오후 7시30분 광주비엔날레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 위촉패를 받고 비엔날레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2014광주비엔날레 응원 메시지를 담은 정우성의 영상편지는 다음달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 마련되는 홍보관에서 만날 수 있다.

정우성은 “국내 최대 권위 미술 축제인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한국을 현대미술을 매개로 세계 속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선한영향력, 미안마 양곤 자원봉사 떠나



사단법인 선한영향력(이사장 정성현·사진)이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안마 양곤지역으로 자원활동을 떠난다. 의사, 조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사단 23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아시아 공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현지주민 진료는 물론 치과와 치과를 나눠주고, 붕괴 위험에 놓인 노후 학교를 보수해 주는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광주 금구초교(문구류), 중앙약품(약품), 주식회사 엔젤(유아용품) 등 체계각층 후원금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정성현 이사장은 “우리가 약속국일 때 해외 의료인들에게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라며 “선한영향력이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아시아 공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조선대병원, 내일 폐암환자 건강강좌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이 31일 오후 2시 병원 본관 2층 하중현홀에서 폐암환자를 위한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호흡기내과 윤성호 교수가 폐암질환에 대해서 강의하고, 전문 웃음치료를 초청해 잘 웃는 법을 통해 따뜻한 숨쉬기를 배운다. 폐암환자를 위한 가족프로젝트 따숨(多su : m - 따뜻한 숨쉬기)은 폐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폐암 치료 순응도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폐암환자와 가족의 정신 건강 관리의 장구를 제공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진보공단 광주본부 업무협약



전남대병원(병원장 직무대행 김윤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지난 28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중국 관광객에 ‘진짜 한국’ 알리겠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획득 중국인 유학생 이광길씨

“눈에 보이지 않는 한민족 역사·문화 설명 중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국 자금성은 크고 훌륭하고, 한국 경복궁은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관광객들에게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멋과 맛을 알려주겠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진짜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이광길(28)씨.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언제나 한국을 향한 관심을 잃지 않은 덕분에 호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학 석사학위 과정을 마쳤다. 최근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획득해 관광통역가이드라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섰다. 이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외

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 및 통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며 한국사와 관광지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 필기시험만 4과목을 치르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합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관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북경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부터다.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전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북경에서 가이드로 6개월간 일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어릴 적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지난 2012년 호남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관광에 대해 공부했다. ‘한국어능력자격시험 6급’과 ‘MOS-master’까지 취득한 그는 현재 서울의 한 여행사에서 인턴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방한 중국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 이씨는 ‘보는 관광’만으로는 중국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류’를 만들어낸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한국을 다시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가 곧 민간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한국 공부에 여념이 없는 그는 제2의 고향에서의 삶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을 노력하자고 말했다. “많은 연변주민들이 일자리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목표나 준비 없이 무작정 한국에 온 이들은 식당과 공장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어요.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한국 역시 중국보다 임금수준이 높지만 그만큼 큰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결국 어디에서든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과 열정이예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드로잉 작가 김정기(오른쪽)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당시 참상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순천 아교라에 술단 소속 김명진(왼쪽)씨가 김보나 씨의 해금가락에 맞춰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美 소녀상 앞의 아리랑

제막 1주년 기념·위안부 피해자 방문 맞춰 공연

2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가족 봉사화와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순천시 아교라에술단 소속 김명진씨는 이날 낮 12시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김보나 씨가 연주하는 해금 가락에 맞춰 청아한 목소리로 봉사화와 아리랑 민요를 열창했다.

이러 세계적인 드로잉 작가인 김정기 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게 징집당하는 위안부 참상을 일러스트레이트로 재현하는 ‘역사 알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문화공연은 소녀상 제막 1주년을 기념하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의 방미에 맞춰 기획된 것이다.

공연을 주관한 이창영 글렌데일 도시개발 커미셔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방미에 맞춰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상임대표 김영진)는 전날 열린 제3회 글렌데일 ‘위안부의 날’ 행사에서 마이크 혼다(민주)·에드 로이스(공화) 연방 하원의원, 프랭크 킨테로 전 글렌데일 시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광주 두번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박철홍 골드클래스 대표·부인 임성자씨 2억 기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는 29일 아너 소사이어티 제18호·19호 회원이자 광주 2번째 부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박철홍 골드클래스(주) 대표와 그 부인 임성자 세종건설(주) 대표는 이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기부를 약정하고 전국 530, 531번째 아너 회원이 됐다.

박씨 부부는 5년간 2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며, 성금은 광주지역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들은 “건설 경기 침체와 나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보살핌이었다”며 “앞으로 서민주택 활성화와 기업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누



군가를 돕는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향후에도 지역공동체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 올해 신규 회원 6명을 포함, 총 19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전국적으로 531명의 회원이 가입해 나눔문화에 선도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인사

- ◆전남도
◇지방이사관 승진 ▲정병재 의회사무처장
◇지방부이사관 전보 및 승진 ▲주동식 일리리정책실장 ▲배택후 경제과학국장 ▲정순주 안전행정국장 ▲최종선 해양수산국장 ▲윤광수 공무원교육원장 ▲오광록 안전행정국장 ▲문동식 F1조직위원회 본부장(승진) ▲장현범 안전행정부 전출(승진) ▲천제영 동부지역본부장(승진) ▲송영중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인후 전남발전연구원 파견 ▲신현숙 보건복지국장 직무대리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 직무대리 ▲위광환 건설설계국장

- 장 직무대리 ▲이승욱 여주시 부시장 ▲명창환 순천시 부시장 ▲임영주 광양시 부시장
◇지방환경연수관 ▲양수인 보건환경연구원장(직위승진)
◇지방기술 서기관 ▲서은수 정책기획관
◇지방서기관 ▲정현호 안전행정국 총무과 ▲민상기 도입도서관장 ▲최성현 구례부군수 ▲정승준 강진부군수 ▲정근택 영광부군수 ▲손영호 진도부군수 ▲임재영 보성부군수 ▲양재승 해남부군수 ▲정찬균 장성부군수 ▲송경일 신안부군수
◇공로연수 ▲박래영(지방이사관) ▲이호경(지방부이사관) ▲최희우 ▲박환기 ▲정광덕 ▲홍삼수 ▲최갑준 ▲김재홍 ▲신영수(이상 지방서기관)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중)월례회=8월5일 오후 6시 30분 금강산 식당 062-224-0808.

알림

-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지기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치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

- 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금융연설행’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

- 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설현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

- 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애인복지관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014년도 7~9월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스포츠댄스, 요가 3개월 3만원(월~목) 수시접수 062-951-9461.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여성가족이신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임·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청재가 정기요양기관 회원=정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수료상담, 고령, 노

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기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부음

▲염정호씨 별세 보영·가영·세영씨 부친상=발인 30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백홍순씨 별세 수근·학근·철근·수덕·수경씨 모친상=발인 30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이덕무씨 별세 해란·해영(상계백병원 교수)·근영(서울사이버대학교)·선영(정광고등학교 교사)씨 부친상=발인 31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Advertisement for Mykumho funeral home. Title: '삼가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We respectfully pray for the repose of the deceased). It lists four funerals: 102호 故양승현 님(남/62세), 201호 故전백식 님(여/93세), 401호 故최성숙 님(여/58세), and 402호 故윤현숙 님(여/49세). Each entry includes the name, date of death, and funeral details. Contact: 062)227-4000.